

특 집

대학설치기준령 대학실험·실습설비기준에 대한 특집을 기획하며

본 특집의 개요

평소 학회에서나 사적으로 건축학회 회원들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누구나 교육부 대학설치기준령 대학실험·실습설비기준(이하 설비기준)이 잘못되었고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현재의 건축분야 설비기준은 21세기 건축교육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타 학문분야의 설비기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단히 미흡하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발전적인 측면에서 설비기준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설비기준을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 학회를 주축으로 제안된 설비기준은 교육부에 제출하여, 추후 대학설치기준령 개정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 내용은 설비기준의 연혁, 각 분야별 설비기준의 문제점, 개선방향 및 기준안의 제안 등이 된다. 필진으로는 교육부 관계자, 대학교수, 건축가, 기술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대학교수의 전공분야는 건축교육백서를 참조하여 설계/의장, 역사/건축론, 환경/설비, 시공/재료, 구조/역학, 도시/단지로 구분하여 해당 전공의 교수들에게 원고를 의뢰하였다. 앞의 전공분야 구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달리 마땅한 기준이 없는 관계로 우선은 이에 따랐다.

원래는 앞의 내용 이외에도 외국 대학의 시설기준, 시설기준에 관한 좌담회 또는 워크샵 등을 포함시켰으나 필진의 선정이 어렵고 준비기간이 짧아서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추후에 다른 기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방학기간이었기 때문에 원고의리를 위하여 필진을 선정하고 접촉하는 것이 어려웠다. 별로 흥미롭지 못한 내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하여 원고를 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특집이 교육부 대학설치기준령 대학실험·실습설비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후 워크샵 등 실무적인 작업을 통하여 건축학회가 주관하여 설비기준 개정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집주간 : 군산대 문창호 조교수)